

인지된 진로장벽이 진로타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우정

극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Career Barriers on the Career Compromise: Focused on the Moderate Effect on the Self-Efficacy

Woojung Jang

Professor, Department of Airline Cabin Service Management, Far East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된 진로장벽을 내적장벽과 외적장벽으로 분류하고 진로타협과의 관계를 파악한 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융합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된 진로장벽 및 진로타협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해 280부를 회귀 분석하였다. 인지된 내적장벽과 인지된 외적장벽은 모두 진로타협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조절변수로서의 자기효능감 역시 진로장벽과 진로타협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진로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므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교육이 학생들의 진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현재 근무 중인 졸업생들의 직장만족도 및 이직률이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융합, 진로장벽, 진로타협, 진로교육,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to career compromise of university students who are looking for jobs. In this research, career barriers are classified interior barriers and exterior barriers and the moderate effect was verified on the relation between both barriers and career compromise. The collected 280 survey sheets were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As results, both career barriers affect on the career compromise positively. And self-efficacy has a moderate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compromise. These findings show that self-efficacy can help students overcome their career barriers. In the further stud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rate are related to self-efficacy.

Key Words : Convergence, Career barriers, Career compromise, Career Education, Self efficacy

1. 서론

취업은 장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개인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쌓는 활동이다. 따라서 취업을 위

해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발달 이론에 의하면 대학생 시기는 전환기(transitionsstage)와 시행기(trialsstage)로 표현되는데[1], 이는 사회의

*This paper was supported by Far East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Woojung Jang (jangwj23@gmail.com)

Received October 8,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1,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일원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서 준비를 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의미한다.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한 개인의 삶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높은 시기는 대학생 시기로 나타났으며, 최근 몇 년간 대학생의 진로 관련 논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 사회 전체적인 현상임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 진로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2-3] 대학에 진학하면 진로와 직업에 대한 탐색의 시간 보다는 학점관리와 스펙 쌓기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4].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탐색이 턱없이 부족한 첫 취업의 결과는 2년 내 이직률 75% 상회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계속되는 고용환경의 불안정성으로 환경적 심리적 장벽을 높게 실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5].

이러한 시기에 대학생들이 인지한 진로장벽의 변인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타협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진로교육의 중요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장벽의 인식을 낮출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착안하여,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과 진로타협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는 진로의 현실적인 타협에 머무르는 현재의 진로교육에서 진일보하여 보다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진로장벽

진로에 대한 고민은 현재의 어려움, 즉 진로에 대해 방해가 되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진로장벽의 개념은 지각된 장벽[6], 진로와 관련된 장벽 [7]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진로장벽을 세분화하는 시도도 찾아볼 수 있는데, Famer[8]는 처음으로 진로장벽을 내적 또는 자기 개념적 장벽과 환경적 장벽으로 분류하였다. Swanson과 Daniels[9]는 진로장벽에 대해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정의하고 진로장벽에는 개인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고 하

였으며 바로 뒤이어 Swanson과 Woitke[10]도 내적장벽과 외적장벽을 모두 진로장벽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손은령[11] 역시 개인의 진로계획 및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개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내적, 외적 요인을 모두 통합하여 진로장벽이라 정의하였다. 이처럼 진로장벽은 직업, 진로계획 및 목표에서 자신의 진로목표 성취를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내적, 외적 요인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12]. 내적장벽은 자신감의 결여 소극적 태도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이며 외적장벽이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혹은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외적요인을 포함한다[13].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진로와 관련하여 내적이고 심리적인 변인들이 강조되었다[14,15]. 그러나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제약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후 환경적 요인이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고 외적 진로장벽이라는 변인에 관심이 커졌다[4,16,17]. 특히 본 연구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라는 외적 장벽에 주목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18], 개인의 흥미나 적성이 부모의 권유나 강압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과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외적갈등은 타인에게서 얻은 정보의 중요성과 자신이 지각한 정보의 중요성 간의 균형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하여 진로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19]. 따라서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진로타협이 발생하는 주된 외적장벽이라 할 수 있다.

2.2 진로타협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이 원하는 것을 걱정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진로 상담에서 크게 어려운 존재들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가능한 진로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로 대안의 범위 혹은 특성들이 개인이 꿈꾸는 이상적인 직업의 모습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0]. 더욱 의미 있는 선택을 위해 개인은 자신이 처한 외적 상황에 맞게 욕구를 희생해 나가는 타협의 과정을 반복해야 하며[21], 타협은 진로선택의 최종 단계이자 모든 선택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22].

2.3 자기효능감

Bandura[24]는 자기효능감을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하고[25], 활동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와 질을 결정한다고 하였다[26].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어떤 문제나 과제에 직면하였을 때 선택 가능한 대안이나 문제해결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의 행동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 중 하나이므로[27], 자기효능감이 진로타협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 것이 검증되었다[28-31].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과 진로타협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이 인지한 내적·외적 진로장벽이 진로타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조절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과 진로타협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라 군집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설계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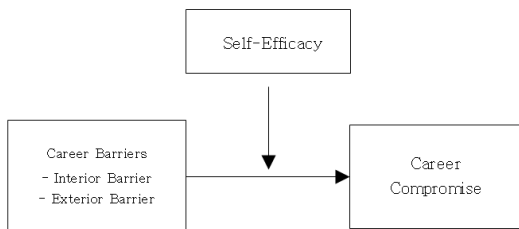


Fig. 1. Research Design

- H1: 내적진로장벽과 진로타협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H2: 외적진로장벽과 진로타협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H3: 자기효능감은 내적진로장벽과 진로타협 간 관계에 조절 효과가 있다.

H4: 자기효능감은 외적진로장벽과 진로타협 간 관계에 조절 효과가 있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취업을 위해 지속적인 고민을 하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년제와 4년제는 구분하지 않았으나, 전공은 큰 범주로 나누었고, 특히 보건계열이나 항공계열 등의 특수 직업을 목적으로 수학하는 학생들은 따로 전공을 표기하게 하였다. 이는 설문에 응답하기에 앞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생각하여 설문에 몰입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 설문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작성되었고,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2주간 배포와 동시에 회수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거하고 총 28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107명 응답하여 38.2%, 여자는 173명 61.8%로 여자의 응답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3.3 측정도구

많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측정 척도로 이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응답자에게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이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항들을 제거, 수정하여 설문지를 확정하였고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인지된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영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한국 대학생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편집하여 사용하였다[32]. 이 척도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미래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설문의 문항으로 내적장벽 요인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을 사용하였으며, 외적 장벽요인으로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을 사용하였다. 나이와 미래문항은 설문대상자의 나이가 비슷하므로 설문 문항에서 제거하였다. 진로타협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지영[33]이 개발한 진로타협 척도를 사용했다. 이는 직업명성하향, 전공유보, 적성유보, 노동시장 진입 연기로 구성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차정은[34]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했다. 이것은 자기조절의 기제를 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자기조절효능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인

‘자신감’, 그리고 목표설정시 도전적인 목표를 선호하는 ‘과제난이도 선호’로 구성되어있다 [35].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거쳤다. 가장 먼저,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각 문항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Cronbach' α의 계수로 예측 가능성 및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각 변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계수는 Pearson 상관계수를 적용하였다. 그 후 인지된 진로장벽을 내적진로장벽과 외적진로장벽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진로타협과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진로장벽과 진로타협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4. 분석결과

4.1 응답자 빈도분석

통계에 이용된 응답자는 280명이었고, 남자는 107명 응답하여 38.2%, 여자는 173명 61.8%로 여자의 응답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4.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해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1. Subjects' background (N=280)

factor	Category	N	%
Gender	Male	107	38.2
	Female	173	61.8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58	20.8
	Engineering	53	19
	Natural Science	4	1.4
	Health	48	17.1
	Aviation	113	40.3
	Art and Physical Education	4	1.4
TTL		280	100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고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검사와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성검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선택의 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진로장벽에 대한 신뢰도 분석값은 매우 높게 나타나서 모든 항목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사회과학에서 cronbach' α의 값이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데, 외적진로장벽.91, 내적진로장벽 .93, 진로타협 .83, 자아효능감 .91로 측정도구들의 내적 일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Scale items, Factor Loading, Reliability

Construct	Validity			Reliability	
	Factor Loading	communality	Eigen Value (Variance)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icb_01	.85	.76		.89	.91
icb_02	.77	.81	2.92	.90	
icb_03	.75	.82	(41.74)	.87	
icb_04	.73	.80		.88	
ecb_05	.86	.89		.87	.93
ecb_06	.82	.90	2.90	.86	
ecb_07	.81	.80	(41.36)	.89	
cc_08	.85	.71		.77	.83
cc_09	.82	.76	2.60	.79	
cc_10	.81	.77	(41.63)	.78	
cc_11	.79	.72		.79	
se_12	.89	.78		.88	.91
se_13	.89	.80	3.12	.87	
se_14	.88	.78	(57.97)	.88	

4.3 연구모형검증

인지된 진로장벽의 진로타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은 다음과 같다.

4.3.1 내적 진로장벽과 진로타협 간의 관계

표 3은 인지된 내적진로장벽과 진로타협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F=71.035, p<.001로 회귀모형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R²=.204, t값은 8.428이다. 이는 인지된 내적장벽이 커질수록 진로타협의 가능성도 커짐을 의미한다.

Table 3. Regression Analysis for H1

	B	S.E	β	t	p
C	1.717	.186		9.252	.000
ICB	.581	.069	.451	8.428	.000

R=.451, R²=.204, adjR².201, F=71.035, Sig.=000

t 값이 8.428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00으로 p<0.05이므로 내적진로장벽이 진로타협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4.3.2 외적 진로장벽과 진로타협 간의 관계

외적진로장벽이 진로타협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는 채택되었으며 표 4에서 요약되었다.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85.347, p<.001) 총설명력 R²값은 .235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외적장벽은 (t=9.236, p<.001) 진로타협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적장벽의 수위를 높게 인지하면 진로타협의 정도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for H2

	B	S.E	β	t	p
C	1.775	.165		10.776	.000
ECB	.540	.058	.486	9.236	.000

R=.485, R²=.235 adjR²=.232, F=85.347, Sig.=000

4.3.3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는 척도의 종류가 등간척도로 이루어졌으므로 조절효과 분석의 방법 중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Baron과 Kenny의 3단계 조절회귀분석 방법에 기초하여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독립변수*조절변수)의 영향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통해 전체회귀식의 설명력 증가분 (ΔR^2)을 검증하여 설명력의 증가분이 유의하고,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할 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 6과 같다.

표 5는 인지된 내적진로장벽과 진로타협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의 결과표이다. R제곱의 양이 0.204, 0.281, 0.310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량에 대한 유의확률도 0.029로 0.05보다 작으므로 조절효과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for H3

	factor	B	β	t	R ²	ΔR^2
1	constant	1.717		9.252	.204	
	ICB	.581	.451	8.428		
2	constant	1.362		7.239	.281	
	ICB	.322	.250	3.978		
	SE	.436	.343	5.464		
3	constant	0.37		.085	.310	.029***
	ICB	.827	.642	4.901		
	SE	1.045	.823	5.334		
	ICB*SE	-.216	-.796	-3.392		

*p<.05, **p<.01, ***p<.001

표6은 인지된 외적장벽과 진로타협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R제곱의 양이 0.235, 0.289, 0.313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량에 대한 유의확률도 0.05보다 작으므로 조절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for H4

	factor	B	β	t	R ²	ΔR^2
1	constant	1.775		10.776	.235	
	ECB	.540	.485	9.238		
2	constant	1.451		8.336	.289	
	ECB	.322	.289	4.372		
	SE	.385	.304	4.592		
3	constant	.382		.995	.313	.024***
	ECB	.725	.651	4.891		
	SE	.861	.678	4.961		
	ECB*SE	-.164	-.685	-3.115		

*p<.05, **p<.01, ***p<.001

5. 결론

본 논문은 진로와 취업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한 내적, 외적 장벽에 대해 조사하였고, 진로장벽이 진로타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대학생 각자의 자기효능감이 인지된 진로장벽과 진로타협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의 대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된 진로장벽은 진로타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은 내적 장벽과 외적 장

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두 장벽 모두 진로타협과정의 관계임이 검증되었다. 내적 장벽은 개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내적 요인으로 자기명확성 부족, 신체적 열등감, 진로에 대한 흥미부족 등을 포함한다. 외적장벽요인으로는 중요한 타인과의 의견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이 사용되었다. 내적 혹은 외적 장벽 요인의 인식은 기존에 희망하던 진로에 영향을 미쳐 진로를 보류하거나 포기하여 직업의 명성을 하향시키거나 전공을 바꾸는 등의 타협으로 귀결되었다.

두 번째로 조절효과 검증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타협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조절능력, 자신감,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전의식 등이 있는 개인은 진로장벽 인지의 수준을 약화시켜 자신의 희망진로를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진로교육에 있어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보다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로에 대한 타협은 희망 진로에 대한 포기라도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면 크게 어려움 없이 취업이 되던 IMF 이전 세대와는 달리 현대의 대학생들은 대학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취업률이 되어버려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는 대학생활 지도의 중심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로에 대한 오랜 고심과 자기 자신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 선택한 분야가 아닌, 인지된 진로장벽으로 쉽게 타협해버리는 진로라면, 이는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하는 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 수준을 낮춰주고, 현실 타협보다는 현실 장벽 극복의 에너지가 되는 자기효능감 증진은 진로지도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훈련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중한 입시경쟁에 휘둘러 자신의 내면의 소리, 객관적인 자기평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부족한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며, 지속적인 재교육 관리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현재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근무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요인이 되며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자기효능감 증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신입사원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 검증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D. E. Super. (1953) A theory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2] S. R. Kim. (2001)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3] E. R. Sohn. (2006) The Relation of Attribution Style and Career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7(3), 803-819.
- [4] B. R. Cho & J. M. Lee (2017) Investigating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Indecision of femal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as the Mediat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1-12.
- [5] D. S. Park & E. Y. Yu (2016), Effects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in Technical Colleg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313-321
- [6] L. F. Fitzgerald, R. E. Fassinger, & N. E. Beltz, (1995)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alsh, W. B., & Osipow, S. H. (1995).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2nd ed. pp. 67-109).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7] D. A. Luzzo, (1997, August) Correlates of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8] H. S. Famer (1976) What inhibits achievement and career motivation in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12-14
- [9] J. L. Swanson, & K. K. Daniels, (1995)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 [10] J. I. Swanson, & M. B. Woitke,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2.
- [11] E. R. Shon, (2001), The relation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and career decis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 251-262
- [12] S. Y. Lee, (2015)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 Graduated school thesis, Dongshin University. Busan.
- [13] H. W. Jung, (2002), *The affection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by perceived career barriers of college women*. Unpublished Graduated school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14] V. N. Gordon, (1981) 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ment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433-439
- [15] R. T. Speich, (1987) A review of the correlates and measurem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if Career Development*, 14 (1), 8-23
- [16] R. W. Lent, S. D. Brown, & G. Hackett (1996) *Career development from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D. Brown L. Brooks, and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373-421)
- [17] E. H. McWhirter, (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240.
- [18] H. J. Koh, & H. W. Kang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2), 277-293
- [19] J. Ch. Lee, I. H. Choi, & M. J. Park, (2003)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Career Thought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 (3), 529-550
- [20] I. Gati (1993). Career compromis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16-424
- [21] D. E., Super, (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22] E. Ginzberg, S. W. Ginsberg, S. K. Awelrad, & J. I. Herma (1951) *Occupational Choic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23] S. H. Jung, & D. K. Seo (2016) Assessing Mediated Moder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Guidelines and Empirical Illustr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1) 257-282
- [24]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25] H. Y. Kim (2002),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Compromising Interests and Self-efficacy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Undergradu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26] F. Pajares (2002) Gender and perceived SE in self-regulated learning. *Theory in Practice*, 41, 116-125,
- [27] Y. J. Kim, Y. J. Jeung, S. Y. Kim, J. A. Ji, J. Y. Kim, D. G. Lee (2011), The rol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er decision mak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3(4), 971-993
- [28] M. S. Lee, (2003),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Graduated school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 [29] Y. M. Lee, (2002)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Graduated school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Seoul
- [30] S. N. Kim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making and social support of juni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Graduated schoo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31] M. J. You, (2008) *Impact of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Graduated school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Seoul
- [32] E. Y. Kim, (2001)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hwa women's university. Seoul,
- [33] J. Y. Ko (2006) *Factor analysis of career compromise in unemployed youths*, Unpublished Graduated school thesis, Kyonggi University, Kuonggi.
- [34] J. E. Cha (1997) *A study for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development*, Unpublished Graduated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Seoul
- [35] J. Y. Kang, (2009)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ompromise and Career-related Psychological Variabl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 Focused on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Unpublished Doctoral de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장우정(Jang Woojung)

[정회원]



- 201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영문학 석사
- 2013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보경영, 항공경영, 지식경영

• E-Mail : jangwj23@gmail.com